

‘새들의 무덤’ 광주 투명벽 충돌 작년 2626마리...전년비 13배 ↑

솔부엉이·팔색조 등 천연기념물 16마리 포함

광주시에 보호종으로 지정한 개체도 43마리

지난해 광주 도심 인공 구조물에 부딪쳐 죽거나 다친 새가 2626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물권단체 성난비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공 구조물 조류 충돌 사례를 조사한



붕괴 참사 아파트 바라보는 추모객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인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참사현장에서 추모객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결과 총 2626건이 집계됐다. 이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2021년 집계한 200건과 비교해 약 13배나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멧비둘기가 268마리로 가장 많았고, 직박구리 165마리, 집비둘기 110마리, 뉘지빠귀 108마리 순이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도 16마리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솔부엉이 5마리, 팔색조 3마리, 새매·참매·소쩍새 각 2마리, 황조롱이·조롱이 각 1마리다.

또 광주시가 보호 야생 조류로 지정한 물총새·곤줄박이·큰오색딱다구리와 같은 개체도 43마리가 포함됐다.

충돌 장소로는 방음벽 2181건(83%)이 가장 많았고 건물 유리창 306건(12%), 유리난간·버스터류 등 기타 구조물 138건(5%)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광주시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건물도 포함됐다.

성난비건은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민간·공

공기관 유리창, 버스정류장, 아파트 방음벽 등 총 187곳에서 조류 충돌 사례를 조사했다.

단체는 구조물 시공부터 조류 충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박 성난비건 활동가는 “시공사가 민간 인공 구조물에 대해 조류 충돌 저감 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설계·시공을 규제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전남 예비 초등생 6명 소재 불분명...경찰 수사

광주 4명·전남 2명...부모 등과 연락 시도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종료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6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11일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3학년도 광주지역 예비 초등생은 1만 3060명, 전남은 1만425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을 마친 직후 불참 학생에 대해 소재 파악에 나서 타지역 학교 진학, 외국 여행 등으로 확인했다. 이 중 광주 지역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등 총 4개교

에서 예비 신입생 4명이 연락이 안 돼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주소지의 이웃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하고 있으며 부모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구례지역의 C초등학교와 장성지역의 D초등학교도 입학할 앞둔 신입생 2명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초등학교 예비 신입생은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지난 2020년 부모 이혼 뒤 어머니를 따라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D초등학교 예비 신입생의 부모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의 주소지를 친 구자택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여행, 타지역 학교 전학 등의 이유로 초등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명의 학생들은 사유가 불분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와 연락이 되고 있지만 최종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는 지속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尹정부 경찰국 신설 후 첫 경무관 승진서 ‘호남 홀대’...영남 편중

민주 이형석 의원 “윤핵관 입김(?)” 승진 예정자 22명 중 호남 2명 불과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예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남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경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12명으로 55%를 차

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승진 예정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명), 경북(2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청권 출신이 5명(대전 2, 충북 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 출신의 6분의 1 수준인 2명에 그쳤고, 서울과 인천 또한 각각 1명에 그쳤다.

이번 경무관 승진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강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현 정부 경찰인사의 가능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의원은 “이번 경무관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 출신 편중인사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소위 ‘윤핵관’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0일 이뤄진 총경 인사에서도 특정 지역 편중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 인사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 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